

조계종·정각회 공조 절실

이해봉 정각회장, 포럼서 "자연공원법 등 관계법 개정 위해 필요" 주장

불교관계법 개선을 위해서는 '조계종-정각회'의 공조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각회 회장 한나라당 이해봉(사진) 의원은 9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불교인재개발원(이사장 허경만) 정책포럼에서 "그동안 정각회가 단순한 신행조직에 머물러 불교계가 필요로 하는 정책과 관계법 개정에 조직적으로 나서지 못했다"고 반성하고 "조계종 기획실도 불교계에서 필요한 관계법 개정을 정각회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축 허용은 가톨릭 신자인 장병국 의원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환경노동위에 제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정각회가 사력을 다해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지만 불교계 차원의 관심과 지원 없이는 개정이 불가능하다"며 불교계가 나서 법 개정 여론 주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안상수 의원이 발의한 '자연공원공원법...'도 개발제한구역이나 그린벨트 내 전통사찰의 경우 당국의 허가를 얻어 건축물의 설치 및 토지형질 변경 등을 허용하자는 내용이 골자지만 녹지 훼손과 타종교와의 형평성문제로 아직까지 건설교통부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대해 포럼 참석자들은 "전통사찰은 1000년 이상 한국에서 실행되고 있고 있지만 산림청의 반대로 형질변경이 되

지 않아 요사나 화장실 하나도 마음대로 지을 수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전통사찰의 경우 종교시설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종교용지로 토지형질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근 조계종의 현안으로 민감하게 떠오르고 있는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를 담은 자연공원법개정안과 관련해 기획실 관계자는 "공원입장료 폐지는 종단의 오래된 입장이며,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징수해온 관료들 감소에 대해 정부에 보상방안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 의원은 "내년에 정각회 차원에서 도시공원내 전통사찰의 복원 및 신축이 가능하도록 도시공원법개정안, 전통사찰의 산지전용 및 전용부담금을 완화하는 산지관리법개정안, 전통사찰명의 농지취득을 허용하는 농지법개정안을 발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조계종 기획실장 승원 스님은 "재가불자들이 종단을 정책적으로 외호할 수 있는 기회와 역할을 모색한다는 점에 서 오는 포럼과 같은 시도가 일찍부터 있었어야 했다"며 "인재불사의 차원에서라도 정각회와 긴밀히 협조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법장 스님 1주기 추모 다례재 봉행

제31대 조계종 총무원장 인곡당 법장 스님의 1주기 다례재가 9월 29일 예산 수덕사 황하정루에서 봉행됐다.

추모법회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다례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원 천은·동춘 스님, 중앙총회의장 법동, 교육위원장 청화, 수덕사 수좌 설정, 백양사 유나 지선 스님, 김의정 중앙신도회장, 고건 前 총리, 이명박 前 서울시장, 심대평 前 총남지사를 비롯해 문도회 스님 등 사부대중 2000여명이 참석했다.

불국사 주지후보 성타 스님

산중총회서 선출

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 선관위(위원장 종상)는 9월 29일 산중총회를 열고 제24대 주지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성타 스님(사진)을 선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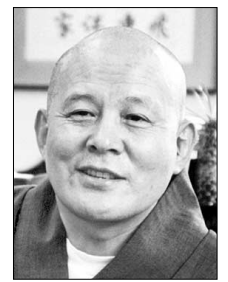
성타 스님은 1952년 불국사에서 월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뒤 조계종 포교원장과 불국사 주지를 역임했다.

이날 산중총회에는 교구선거인단 총 95명 가운데 57명이 참석했다.

“교계신문·인터넷 꼭 본다”

지관 스님 기자간담회에서 언론관 피력

취임 1주년을 1달여 앞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9월 27일 오전 불교계 기자들과 만나 평소 불교계 신문과 인터넷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피력했다. 특히, 불교계 언론의 총무원 집행부와 종단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에도 항상 귀를 열어 놓고 있음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으며 당연히 'e-메일'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해 기자들을 놀라게 했다.

기자회견이 아닌 일로 기자들이 총무위원장을 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한 기자가 교계신문이나 인터넷 기사를 읽느냐는 질문하자 당연하다는 듯 큰소리로 "교계신문 모두를 꼼꼼히 읽는다"고 답하는가 하면, 세랍 76세 고령이지만 "인터넷매체들도 빼놓지 않고 보고 있

님은 이날 대학자답게 정론직필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예부터 사람은 삼봉(三鋒)을 조심해야 하는데, 첫째가 필봉(筆鋒)이고 두 번째가 설봉(舌鋒) 세 번째는 검봉(劍鋒)이다"라는 고사를 인용했다.

조용수 기자

관음사 선관위 등 조사의뢰 중앙선관위 "산중총회 무효"

중앙선관위(위원장 도공)가 종법 절차를 무시하고 주지후보선출을 강행한 제23교구본사 제주 관음사 교구선관위·총무원을 호법부에 조사의뢰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회의는 9월 25일 제161회 회의를 열고 관음사 산중총회의 무효를 선언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조속히 산중총회를 소집을 명명했다.

한편 21일 관음사는 산중총회를 강행해 현 주지 용주 스님을 주지후보로 선출했다.

“한글통일법요집 사용용” 조계종 해외사찰에 배포

미국, 인도, 유럽 등 130여 조계종 해외사찰에 <한글통일법요집>과 동영상 자료들이 배포된다. 조계종 포교원은 "한글통일법요집" 완성을 기념하고 해외 각지에서 포교활동을 하고 있는 해외사찰의 포교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통일법요집을 배포한다"고 9월 27일 밝혔다.

포교원은 <한글통일법요집> 1, 2권과 함께 간화선DVD(한·영), 불자예절(한), Invitation to Korean Buddhism DVD(한·영)도 함께 발송한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030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hnapia.com
 광고국 (02)2004-8213-7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hnapia.com
 FAX (02)737-0696 온라인서점 여시어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님, 재정국장에 덕관 스님, 조사국장에 서호 스님, 상임감찰에 각주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지관 스님은 이날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국장 소임은 부징과 재가 총무원을 연결하는 핵심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이라며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라"고 당부했다.

조용수 기자

총무국장에 혜경 스님

조계종 총무원 국장급 인사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9월 28일 각 부서 국장급 교역직 인사를 단행했다.

총무국장에 혜경 스님, 기획국장에 원철 스님, 감사국장에 경우 스

고침 본지 597호 2면 '미주 승가회 결성' 기사와 관련, 창립일은 10월 5일을 10월 15일로 고칩니다. 같은 면 통도사 종회의 원 출마 예상자 보현 스님을 보화(울산 옥천암 주지) 스님으로 고칩니다.

14면 경운사 보연 스님의 자장면 보시 기사 중 흥천교도소는 흥성교도소가 맞습니다.

'사리 반환'을 결정할 이유는 필가.

혜문 스님은 "불교계의 거센 반발로 인해 '삼상'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것을 우려한데다, 불심이 돈독한 삼성리움박물관 총라희 관장의 결단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흥 관장은 독실한 원불교 신자이면서도 현재 불교계 성단체 '불이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스님들과도 많은 인연을 맺고 있다.

1981년 삼성문화재단이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현등사 사리구는 은으로 만든 사리함과 수정으로 만든 사리호(사리를 담은 조그만 항아리)로 구성돼 있다. 사리호 안에는 사리 2개가 들어 있다. 사리함 겉면에 '懸燈寺(현등사)'라는 글씨와 함께 1470년 사리함을 만든 배경 등을 기록했다. 조계종 측은 "삼성문화재단에서 즉각적으로 반환하겠다고 했지만 전시시설 마련이나 사리 친견 법회 행사 등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11월 중 반환받아 삼성 측과 공동으로 '사리 친견 법회'를 열 것"이라고 전했다. <현등사 주지 삼성문화재단이 1심 재판에서 승소하고도 결국 노병철 기자

현등사 사리 반환되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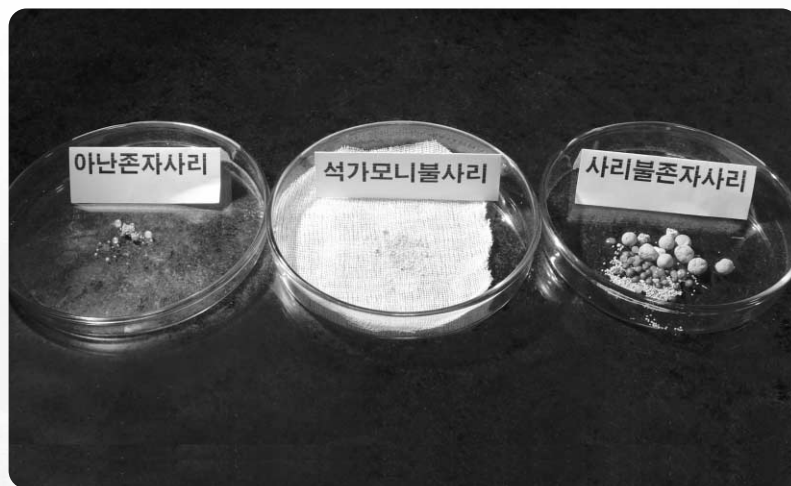
- △2004.11 현등사, '성보문화재 일제조서' 중 당시 현등사 사리구가 삼성문화재단에 소장되었던 사실 확인함
- △2005.08.22 현등사,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민사조정신청
- △2005.10.07 민사조정 결정, 정식재판에 회부
- △2005.12.05 사리구 도굴범 서모씨, 봉선사로 자백 편지 발송
- △2006.03.24 문화재청, "사리 자체는 문화재로 지정된 바 없다"
- △2006.04.18 현등사, 삼성리움박물관 방문해 사리구의 현장검증
- △2006.07.20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
- △2006.08.03 '현등사 사리 제자리 찾기 추진위', 서울 서부지방 법원장에 항의 방문

석가모니불 · 사리불 · 아란존자 진신사리 친견법회

구원겁 전에 성불하시고도 중생제도라는 일대사 인연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바세계에 오신 석가모니부처님!

지혜제일 사리불존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까지 25년간 부처님을 시봉하신, 그래서 가장 부처님의 범문을 많이 들어 다문제일 아란존자님의 진신사리 삼탑을 장엄하게 조성하고 있는 천호산 백운사에서 평생을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에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이 시대 한국불교의 참 지도자이신 태공 월주 대종사님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대법회를 봉행한 후 마지막으로 진신 사리를 대중이 함께 친견한 후 사리탑에 봉안하오니 모두 오셔서 부처님을 친견하는 선근인연을 맺으시고 복덕과 지혜를 구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음

- 일 시 : 10월 29일(음 9월 8일) 일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천호산 백운사 (☎ 063-836-8047)
- 증명법사 : 태공 월주 대종사(전 조계종 총무원장)
- 참고사항
 1. 사리친견은 법회 당일만 가능합니다.
 2. 오시는 길은 호남고속도로 익산 인터체인지로 나와 여산으로 오시다가 여산 송씨 문중산으로 오세요.
 3. 부처님 진신사리탑은 8각 9층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천호산 백운사 주지 우성 합장